



“위의 것을 찾으라(VI)”

골로새서 3:1-12

찬양 :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1.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쁘신 뜻에 따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동시에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지금 그 자리가, 나를 위해 택하신 사명의 자리임을 확신하고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속한 옛 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깊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